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하주현 |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수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재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시킴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공헌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 사람의 인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 선발 및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재 교육 또는 수월성 교육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15%의 학생에게, 영국은 5~10%, 싱가포르는 1%, 호주는 1%, 이스라엘 3%, 대만 1%, 러시아 1%의 학생에게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대상 학생은 04년도 기준으로 0.3%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난 후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영재교육을 포함하여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0년까지 전체 5%의 학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목고를 육성하여, 이들이 후에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제 모색을 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 깊고 의미 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 언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은 매우 시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김 언주 교수님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본 논문을 읽고 토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재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담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창의적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최대한으로 개발한다.

이외에도 영재교육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태도 함양, 도덕성·사회성·지도력의 개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공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는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자기력의 개발이 더 많은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한다.

충청남도의 교육목표가 국가적 영재교육의 목표와 차이점이 있다면 창의적 과학영재를 양성하는데 특화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때 과학영재에 한정해 교육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군들이 충남에서 배출되어야 지역의 발전이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영재만이 아니라 인문영재의 양성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꼭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2. 영재교육의 시행 및 운영계획

표1.에 의하면, 학급 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충남 전체 모두 3곳으로, 초, 중, 고 각 1개교씩이다. 또한 지역 교육청 소재 영재교육원은 모두 7곳으로, 천안교육청, 논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보령교육청, 부여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등이며 이외에 충남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충남 과학고가 있다. 대학수준의 영재교육원은 공주대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충남의 시군 지역분할을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도 영재교육선발 및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영재선발에 대표적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고의 경우, 04년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모두

표 1. 충남 영재교육 추진계획 총괄표(2005)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강사수	연수인원	대상학생	개설과목	운영예산	
2005 계획	학급	3	37	640	150	-	초, 중, 고	전체열	620,380,000원
	원	8	31	620	127	120	초, 중	수학, 과학	
	대학	1	24	280	50	-	초, 중, 고	수, 과, 정보	
	계	12	92	1,520	327	120	초, 중, 고	-	
2003 실적	4원	13	238	60	29	초, 중, 고	수, 과, 정보	341,198,000원	
2004 실적	4원	14	280	60	41	초, 중	수학, 과학	573,841,000원	

118개의 학교가 있으며, 충남에는 현재 충남과학고등학교 1개교만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예술고와 정보고 각각 1개교씩만 개소될 계획이 있어서, 영재학교의 수가 타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보다 더 많은 영재학교를 개소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의 영재학교출신의 영재들은 충남이 고향이 아니라도 제 2의 고향이 되어 충남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영재육성을 위한 전략

김연주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재육성을 위한 10대 전략'은 충남의 영재교육에 꼭 필요한 제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교육청과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주

체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대학의 확대, 연구소,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영재교육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주체 간에 역할 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의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초·중·고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재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영재교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시간, 또는 주말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군별로 영재

교육의 선발 및 교육이 모두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딴 지역의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이나 주말에 영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방학 중 영재교육 캠프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재교육의 영역을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언어, 창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또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배출된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은 곧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2002년에 마련된 “영재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창의력 교육이 영재교육의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남의 영재교육은 창의력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만 치중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이나 지식 영역의 틈새에서 생기거나 어떤 것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생긴다. 21세기가 지식기만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미래의 인재들에게 무엇보다도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해 주는 창의력 교육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풍토가 마

련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수행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교사는 성공적으로 영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테크닉, 그리고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김홍원, 2002).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국내연수의 경우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외 연수는 2005년도에는 계획에 있지 아니하다. 선진의 국외 우수한 영재교육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이 분명한 데, 오히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지원 풍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토론자에게 충남 영재교육의 실패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 언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